



장애인교통문화협회 전주지회장, 라면50상자 지원

사)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전주지 회장(정인 스님)은 27일 인후2동주민자치센터에 라면 50상자를 지원했다. 또한 설날전에는 프로폴리스 차약 200개, 글로코사민 200개, 칫솔4개들이 200세트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 최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0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교수, 노인종합복지관장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즉결심판 사건 3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를 감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마음있는 사회봉사'

코로나19 극복위한 1억여원 상당 후원 물품, 전국 1410명의 어르신들께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마음있는 사회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독거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주시청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마음있는 사회봉사"는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조사 과정 중 발굴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매분기 방문해 말벗 봉사 와 더불어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2012년부터 총 30회 31,112명의 어르신께 22억 5백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손세정제와 식품키트가 포함된 9천 9백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1,410명의 고령·독거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택배로 배송되며, 그 중 전주시 거주 어르신 70명에게도 500만 원 상당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특별재난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8천만 원 상당의 예방물품과 식료품, 2



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109개 지사를 통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8천 4백만 원 상당의 식료품키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공단은 노·사가 협력해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모아진 성금 3천 871만 원도 기탁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만원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7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코로나 19 극복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과 김동현 센터장, 서두원 정읍시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이성란 부행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읍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전북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87세 고령 코로나19 환자 살렸다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매다 치료 병실이 없어 대구에서 전복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아오던 87세 고령의 중증환자가 생사의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대구에서 온 또다른 2명의 코로나19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지난 27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 이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폐렴 증세가 악화돼 지난 6일 본원으로 전원 된 윤00(87) 씨가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일반 음압병실로 옮겼다.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 13일 만에 상태가 호전되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자발호흡을 통해 대증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이 환자는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돼 위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구 경북지역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병실이 포화된 상태여서 전국 병원에 수소문 중이었고 전북대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나섰다.

환자가 전북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산소포화도가 64%까지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들은 우선 환자의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기관내삽관과 기계호흡



(intubation & mechanical ventilation)을 시작했다. 환자는 기저 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경피적심혈관 중재술까지 받아 심장기능이 잘 버텨주는 것이 관건이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행스럽게 환자의 심기능이 잘 버텨 주었고 13일간의 집중치료 후 인공호흡기를 떼었으며 현재는 폐렴증상도 대부분 소실되었고 활력증후도 안정적이다. /김윤상 기자



익산시청 전직원,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

27일 익산시청 전 직원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성금 2,024만원을 기탁했다.

익산시는 지금까지 관내 거주민 중 단 한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등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이에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익산시 전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의료원, 의료진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남원의료원 입원하였던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지난 23일 퇴원하며, 입원기간 동안 남원시민과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으며 일부 환자가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남원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편지에는 가족같이 보살펴 주신 남원의료원 의료진과 남원시민이 보내주시는 넉치는 인정과 뜨거운 사랑 덕분에 완치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뜻과 함께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을 찾을 때 가족들과 함께 남원 광한루를 찾아오겠다고 쓰여있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환자의 감사 편지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투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진지사 010-6645-9935	필북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간식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범우)는 지난 27일 지역 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에 전달됐다.

전달된 성금은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전주산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도시락과 머핀을 구입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는 관내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열화상 감지 카메라 운영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관내 중국 유학생에게 전달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 된 이후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화훼농가 꽃 시주 및 헌혈 행사 등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범우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파트너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